

社會化的 社會心理學的 考察

鄭 良 殷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社會化 (socialization) 란 개념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된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育兒法이나 社會發達の 문제와 관련시켜 社會化가 지칭하는 문제영역에 대한 관심은 인간사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된다. Goslin (1969) 은 최근 30 년간에 있었던 心理學과 社會學의 發達이 비로소 社會化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지적했다. 歷史적으로 보면 20 세기에 들어와 人類學者들이 인간의 文化的 特性과 異質社會의 文化比較研究에서 社會化가 구체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되었다. 처음이들은 社會化를 文化的 傳達過程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原始社會들 상호간의 文化적 차이의 원인을 社會化의 차이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한 社會의 文化가 계승 전달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個人들을 媒介로 한다. 따라서 社會化의 機制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文化라는 환경조건과 관련되어 영향을 받는 인간심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人類學者들은 性格心理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性格理論으로서 Freud의 精神分析學의 성격이론을 원용하여 社會化過程을 이해하려 하였다.

社會化에 관한 연구경향을 요약하여 Child (1954) 는 社會化를 文化傳達過程으로 취급하는 방향과 性格形成過程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兩分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化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역사가 짧아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대상에 따라 定義나 見解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社會化에 관한 여러 定義들을 정리하고 社會心理學의 側面에서 社會化가 갖는 意義를 검토하고 다음 社會化의 心理的 機制를 고찰할 것이다.

1. 社會化의 定義

社會化란 용어가 지칭하는 내용에 대한 관심이 人類學者들에 의하여 비롯 되었으므로 우선 人類學에서의 社會化에 대한 定義부터 살펴 보는것이 순서일 것이다.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實體를 탐색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文化라는 실체개념을 창안하였다. 즉 인간에게는 문화가 있는데 반하여 동물에게는 문화가 없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文化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향유하는 文化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傳達되어 존속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인류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文化는 그것이 존재하는 社會나 集團의 성원을 이루는 個人이 바뀌어도 그대로 영속되어 존재하는 實體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인간의 心理와는 관련시키지 않은 문화의 문제를 취급하였다. 그러나 人類學者들도 文化傳達의 媒介的 역할을 하는 것이 社會成員인 個人임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文化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個人이 文化傳統을 이어받아 그것을 다음 世代에 넘겨주는 과정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을 社會化라 정의하였다.

人類學에서의 社會化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의 하나는 Herskovits (194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個人이 그가 사는 社會속에 統合되어지는 過程을 社會化”¹⁾라 定義했다. 이 定義에서는 社會化라는 개념속에 心理發達이나 性格形成과 같은 인간의 심리과정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個人은 다만 그가 사는 社會나 集團의 文化를 흡수하여 그 사회나 집단의 효용적인 일원이 되며 그러므로해서 文化를 전달하는 매개적인 존재로만 파악되고 있다. Herskovits는 더 나아가 “Socialization”(社會化)과 “enculturation”(文化習得)이란 개념을 구별하였다. 전자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고 후자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학습체험중에서 그런 학습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리고 그런 학습을 한 다음의 생활에서 자기 문화속에서 유

註 1) The process by means of which an individual is integrated into his society is called socialization, p. 38.

능함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學習體驗의 측면들을 文化習得(enculturation)이라”²⁾ 定義했다. 부연하면 社會化는 개인이 그가 사는 사회의 문화속에 통합되어 들어가는 과정이고 文化習得은 그 문화속에 있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기술을 체득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Herskovits 같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실체로서의 文化을 탐구하는 순수한 人類學의 입장과는 달리 서로 異質인 文化를 갖는 사회를 비교하는데 관심을 갖는 人類學者들이 20 세기의 중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경향을 대표한 사람들이 Margaret Mead 나 Ruth Benedict 등이다. 이들의 관심은 인간이나 인간사회에만 특유한 文化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는것이 아니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사회중에서 여러 사회의 문화의 이질성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각 사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특징들을 기술하는데 열중하였다. 문화의 특징은 그 사회에 사는 개인에게서 가장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상 또는 감정등의 패턴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나는 문화적 이질성은 그 사회에 사는 개인들의 행동, 사상, 감정등의 패턴에서 관찰되며 이런 패턴은 개인의 性格을 형성한다. 따라서 문화의 이질성은 性格의 차이로 환원된다. 그리하여 人類學者들은 각 異質文化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학습된 행동, 사상 및 감정의 대표적인 패턴을 찾으려고 했으며 이런 패턴을 代表的 性格(modal personality) 이라 불렀다. 이런 관심은 性格心理學의 관심과 직결되며 그후 文化와 性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였다.

人類學者들이 각 사회의 代表的 性格을 기술하여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는 한 社會化의 문제는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사회의 서로 다른 代表的 性格이 형성되는 과정을 문제 삼을때 단연 社會化의 문제가 文化的 特

註 2) The aspects of the learning experience which mark off man from other creatures, and by means of which, initially, and in later life, he achieves competence in his culture, may be called enculturation .p.40 .

質에 관한 해석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 사회의 代表的 性格의 형성 과정을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育兒法의 특징에서 찾으려 하였다. 즉 育兒法의 차이에 따라 대표적 성격이 달라지고 따라서 文化的 차이가 생긴다는 論理가 성립된다. 이때 育兒法은 단순히 幼兒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 이외에 유아가 문화를 받아드리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 후자의 의미로서의 육아과정이 社會化이다. 그리하여 인류학자들은 育兒法과 관계된 發達心理學의 문제들을 社會化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文化的 性格에 관한 연구를 한 學者의 한 사람인 Honigmann (1954)은 社會化의 定義로서 Herskovits의 정의를 받아 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社會化란 개념이 주로 “人生의 어린 時期”(the early partion of the life cycle)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국한된다고 부언하였다. 그의 이런 생각은 社會化를 性格形成의 發達過程으로 파악한 결과라 하겠다. 왜냐하면 Herskovits의 정의에서는 社會化를 文化傳達의 모든 과정으로 취급했으며 유아기에만 한정된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人類學者들이 社會化를 性格形成이라는 발달심리로 이해하게 됨에 따라 심리학자들도 社會化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社會化에 관한 心理學의 定義는 두권의 社會心理學 Handbook에서 찾을 수 있다. 社會心理學의 1954년에 발행된 Handbook에서 Child가 社會化를 解題하였다. 이때 그가 내린 社會化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社會化를 “아주 광범한 행동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개인이 그가 속하는 집단의 규범에 비추어 관행적이고 또 용납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범위로 한정된 실제 행동을 발달시키는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廣義의 用語”³⁾라고 규정하였다. Child는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당시만해도 社會化에 관한 一義的이고 確定된 정의가 아직 없으며 어떤 정의든지 다만 시도적인 성질을 넘을 수 없다고 침언하였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社會化란 개인이 사회속에 통합되는 과정이 아

註 3) “Socialization is used here as broad term for the whole process by which an individual, born with behavioral potentialities of enormous by wide range, is led to develop actual behavior which is confined within a much narrower range—the range of what is customary and acceptable for him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his groups. p. 655

니라 그가 타고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파악되어 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는 文化傳達과는 관계없이 어릴때의 경험이 후에 가서 性格形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하는 심리적 사실을 탐구하는것이 社會化의 연구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社會化란 심리학에서는 발달심리와 일치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같은 발달심리학의 지식은 文化와 性格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류학자들에게도 유용한것은 당연한 일이다.

Child의 해제가 실린 Handbook이 나온 다음 15년이 지나 1969년에 또다른 社會心理學 Handbook이 나왔다. 이 책에서는 Zigler와 Child가 공동집필로 社會化를 해제하고 있다. 이때의 定義는 앞서와는 차이가 있어 개인이 타고난 가능성은 삭제되고 그 대신 社會的交涉(social interaction)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1954년의 Child의 社會化에 관한 정의는 社會心理學 Handbook에 실리기는 했어도 성격형성과 관계되는 發達心理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社會化의 사회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Zigler와 Child(1969)는 “社會化란 타인과의 交涉를 통하여 개인 각자에게 독특한 사회적으로 요긴한 행동이나 경험패턴을 발달시키는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廣義의 用語”⁴⁾라 정의했다. 이 정의는 앞서의 정의와는 달리 社會學習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두권의 Handbook에서 내린 社會化에 대한 心理學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發達心理學과 性格心理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社會心理學의 脈絡에서 社會化를 포착했다고 할 수 없다.

人類學者들이나 心理學者들이 자기 자신들의 대상과 연구방향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社會化를 개념화하여 정의를 내리는 동안 社會學者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社會學에서도 社會化를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社會化에 관한 社會學者들의 관심은 인류학자나 심리학자들 보다 훨씬 뒤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

註 4) Socialization is a broad term for the whole process by which an individual develops, through transaction with other people, his specific patterns of socially relevant behavior and experience . p . 424

존 사회속에 나타나는 보다 더 중요한 社會現象들을 이해하려 하였고 社會化의 문제는 人類學者들의 연구에 의존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社會學에서도 Herskovits에 의하여 대표되는 순수 人類學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化를 文化傳達이라는 社會現象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社會學的 입장은 社會化를 대표적성격형성이나 개인의 심리발달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인류학자들의 경향과는 거리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Goslin (1969)이 인용한 Brim의 社會化의 정의를 현대사회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Brim은 社會化를 “개인들을 집단이나 社會의 효용이 있는 一員으로 참여하게 하는 知識, 技術, 素質등을 획득하는 과정”⁵⁾이라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社會化가 유아기 또는 아동기와 같은 “인생의 어린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심리발달이나 사회의 대표적성격의 형성과정도 아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소질을 획득하는 온갖 학습과정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社會學者인 Brim이 내린 社會化에 관한 정의는 “文化和 性格”을 문제삼는 人類學者들의 정의보다는 Herskovits의 “文化習得”(enculturation)이란 개념을 포함한 社會化의 정의와 가깝다고 하겠다. 끝으로 社會心理學的 脈絡에서 이해한 정의로서 Jones와 Gerard (1967)의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단적으로 “社會化란 집단의 성원들이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價値, 信念, 世界觀을 수용하고 內在化하는 것을 지칭한다”⁶⁾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社會學者인 Brim이 강조한 知的, 技術, 素質 대신에 價値, 信念, 世界觀을 內在化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오히려 Herskovits의 “文化習得”을

註 5)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dispositions that enable them to participate as more or less effective members of groups and society,” Brim, O.G., Jr. Socialization through the life cycle. In O. G. Brim, Jr. & S. Wheeler, *Socialization after childhood*. New York: Wiley, 1966.

註 6) Socialization refers to adoption and internalization by individuals of values, beliefs, and way of perceiving the world that are shared by a group. p. 76.

강조한 대신 후자는 사회행동을 강조했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점에서 후자가 보다 사회심리학적인 정의라 하겠다. 이같은 관점의 차이는 社會學者들로 하여금 社會化를 役割 習得過程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社會化的 社會心理學的 意義

앞에서 社會化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변천해 온 경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의 중에서 社會化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의의를 탐색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定義로서 Jones 와 Gerard 의 정의와 Goslin 이 소개한 Brim 의 정의를 참조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Brim 이 편집한 사회화에 관한 책의 표제가 “兒童期后的 社會化”(Socialization after childhood)로 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社會化가 兒童期나 그 이전에 나타나는 심리과정을 지칭하는데 국한된다면 심리학에서는 社會化를 發達心理學이나 性格心理學에서 다루면 충분하고 社會心理學的 意義는 없는 것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Jones 와 Gerard 도 社會化的 정의에 부연하여 “엄격히 말하자면 社會化는 개인이 새로운 집단규범에 순응하여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타나는 과정”이라 했다. “따라서 軍入隊, 同窓會加入, 養老院入院등 이들 모두가 社會化的 壓力을 받게되며 이들 집단의 행위의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觀點에서는 社會化를 아동기나 인생의 어린 시기에 나타나는 과정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시기를 社會化가 일어나는 여러 상황조건중의 하나로만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社會化的 社會心理學的 기제와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社會化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리과정을 찾아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社會化가 社會心理學的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成人社會에서 社會化가 나타나는 상황조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신학기가 되면 많은 신입생들이 대학캠퍼스에 들어 온다. 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거나 軍에 입대한다. 이들은 각자 새로운 인간사회가 갖는 가치, 신념, 세계관등을 내재화하도록 강요당한다. 즉 신입생을 대학생으로서의 가치, 신념, 세계관을 내재화 하여야 한다. 직장인이나 군인은 각각 직장과 군대의 가치, 신념, 세계관을 내재화 하도록 강요당한다. 즉

대학, 직장, 군대라는 인간집단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 신념 및 세계관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위의 規範을 갖고 있어 개인은 이들 사회의 성원이 되기 위해 이런 규범을 내재화해야 하며 이 과정이 바로 社會化이다.

社會化는 이렇게 現實的으로 조직화되어 實存하는 인간집단에 국한되어 나타난다고 한정할 수 없다. 실제로는 集團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통된 價値, 信念, 世界觀을 공유하는 인간들의 집합을 想定할 수 있다. 예를들면 男便의 집합 또는 주부의 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집합은 현실적인 집합은 아니고 다만 想定된 집합일 따름이다. 이같이 실존하지 않지만 개인의 행동과 관련되는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는 상정된 인간집단을 Newcomb (1943)은 參照集團 (reference group)이라 불렀다. 참조집단도 실존하는 인간집단과 마찬가지로 각기 독특한 가치, 신념, 세계관을 갖고 있다. 신참자는 그 집단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들 행위규범을 내재화 하여야 한다. 남편이나 주부가 된 순간부터 이전과는 달리 남편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가치로운 것, 바람직한 것 또는 세상사를 보는 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상정된 인간 집합에 대해서도 개인은 社會化한다고 할 수 있다.

社會化란 개념이 실존하는 인간집단의 행위의 규범을 내재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상정된 인간집합인 參照集團의 가치, 신념 및 세계관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社會運動, 社會改革 또는 社會革命的 확산 과정도 社會化라고 확대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社會運動이나 社會改革 또는 社會革命이던 기존의 것과 다른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사회개혁의 초기에는 개혁적인 행위의 규범을 신봉하는 집단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집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수인의 집단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개혁적인 가치, 신념, 세계관을 내재화하여야 한다면 거기에는 社會化的 심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社會化를 확대 해석하면 모든 社會改革의 새로운 價値觀이나 理念的인 信念이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도 社會化的 기제로 환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사회화의 기제를 해명하는 것이 社會心理學에서 社會化를 다루는 立場이다.

社會學者들 중에는 社會化를 役割習得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社會를 다양한 役割(role)과 職位(position)의 집합체로 간주한다(G. H. Mead, 1934; Parsons and Shils, 1953). 개인은 사회속에서 한가지 역할을 하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職位는 그 사회에서 필요한만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동일역할을 하는 직위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인간집단을 형성하며 그 집단에 공통된 役割規範을 갖는다고 상정한다. 그리하여 이런 역할규범을 學習하는 것이 社會化라 주장한다. 이같은 見解는 앞에서 언급한 Brim의 사회화에 관한 사회학적 정의에서 예견될 수 있다. 즉 사회화를 지식, 기술 및 소질의 습득이라는 사회속에서의 역할수행능력의 학습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화를 오히려 He - rskovits의 입장에서 볼 때 “文化習得”(enculturation)으로 파악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化를 役割學習(role-learning)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社會心理學的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물론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를 사회현상의 하나로 취급하고 거기 개재하는 심리적의미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社會心理學的인 입장에서는 社會化가 갖는 심리과정을 해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Jones와 Gerard는 知識이나 技術 또는 素質과 같은 역할수행 能力을 학습하는 과정 보다는 사회화하려는 집단의 價値, 信念, 世界觀을 內在化하는 것이 社會化라 정의 했다. 다시 말하면 社會學의 定義에서는 學生이 성적을 올리고 打字수가 매분당 打字數가 늘어나고 軍人의 사격명중율이 높아지는 것이 社會化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社會心理學에서는 이보다는 오히려 學生이 學園社會가 추구하는 價値觀이나 신봉하는 理念的인 信念이나 世界觀을 자기것으로 內在化하는 것이 社會化이다. 그러므로 社會學에서는 하나의 社會現象으로서 인간집단속에서 수행되어진 각자의 역할수행의 결과에서 社會化를 포착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지식이나 기술이 학습된 결과 보다는 價値나 信念이 內在化되는 심리적 과정을 해명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一等射手로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社會化과정보다는 軍人社會의 價値觀이나 군인사회가 지향하는 理念的인 信念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社會化 과정이 사회심리학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인간사회나 인간집단의 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는 언어나 문자에 의하여 잘 규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그런 사회나 집단의 價

值, 信念 또는 世界觀과 같은 행위의 규범들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주어지지 않고 집단성원들의 期待라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회의 역할 수행이란 입장만을 강조한다면 이들 행위의 규범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치나 신념이나 세계관이야 어떻든 군인은 총을 잘 쏘면 되고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고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文化가 있기 때문이라는 命題와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군인다운 군인이나 학생다운 학생은 총만 잘 쏘거나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잘 규정된 인간집단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했다고 해서 社會化가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期待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役割이외의 행위의 규범을 內在化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행위의 규범들이 역할수행보다 잘 정리되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社會化에는 成功과 失敗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社會化에 成功한 개인은 그 사회의 効用的인 일원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化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개인은 그 인간집단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이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社會惡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나 집단에 속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社會的動物”(homo politicus) 이라면 社會化의 成敗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社會化의 心理的機制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社會化의 心理的機制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社會化에 관한 社會心理學의 定義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Jones 와 Gerard의 것보다 더 월등한 정의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의 정의에 의존하여 검토하는 것이 손쉬울 것이다. 그들은 社會化를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價値, 信念, 世界觀을 受容하고 內在化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서 價値, 信念, 世界觀등은 社會化의 내용들이고 受容과 內在化는 社會化의 過程들이다. 대체로 과정으로서 社會化를 파악하는 경우 집단이 갖고 있는 행위의 규범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취급하여 社會化를 學習過程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社會化과정을 다양하게 구별되는 學習理論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社會化과정과 기타의 학습과정과의 구별은 심리과정자체의 구별이라기 보다는 學習되어지는 內

容에 따른 구별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社會化과정은 단순한 학습과정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해석도 있다. 사실 Jones와 Gerard도 이점을 감안하여 社會化의 정의에 內在化란 말을 사용하였다. (Gleitman (1981)에 의하면 內在化란 행동의 外的統制가 內的統制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學習은 補強이라는 외적통제에 의하여 행동이 다소간 영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學習의 機制만으로서의 행동을 외부에서 통제하던 과정이 내부에서 통제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Jones와 Gerard(1967)는 사회화의 정의에 이어 情報依存(information dependent)과 效用依存(effect dependent)이라는 두개의 중요한 개념을 제시 하였다. 情報依存은 信念을 획득하기 위해 집단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이 갖는 理想이나 理念등의 知識을 얻기 위해 情報依存을하므로 이를 知識社會化라 할 수 있다. 效用依存은 필요하고 가치로운 行動을 학습하기 위해 집단에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무엇이나 하는것은 效用依存에 근거한다. 따라서 效用依存에 의한 社會化를 行動社會化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두개의 社會化가 합쳐서 態度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態度의 三段論法的인 성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化는 態度형성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인간집단의 일원이 된 순간부터 시작되어 그 집단을 이탈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도 社會化과정은 종결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知識社會化와 行動社會化는 각각 서로 脈絡을 달리하여 진행되지만 필경은 한 개인의 心理속에서 서로 統合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知識社會化의 내용과 行動社會化의 결과가 상호통합되는 과정은 인간의 심리적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두 社會化의 경험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 심리적 처리과정도 개인의 내면적인 주관세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집단에 의존하는 바가 없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情報依存과 效用依存외에 處理依存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處理依存에 따른 社會化를 處理社會化(processing socialization)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處理社會化는 Jones등이 지적한 內在化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3개 社會化過程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만이 社會化의 社會心理學的 意義가 분

명해 진다.

3. 知識社會化(knowledge socialization)

知識社會化는 社會나 集團의 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知識을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知識의 내용속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차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소질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능력적인 지식을 제외한 知識社會化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社會化를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지식이라기 보다는 사회나 집단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이다. 그 내용에는 개인의 일상 생활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위의 규범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사회나 집단의 理想이나 理念에 이르기까지 광범하다. 인간은 어차피 집단속에서 생활하게 마련이다. 적게는 가족집단의 일원이며, 직장의 한사람이고, 그가 속해있는 여러 단체들의 성원이며 또 국가에는 국민의 한사람이고 전 인류의 구성단위이다. 이들 인간집단에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행위의 규범, 가치판단의 기준 및 그 집단이 지향하는 理想이나 理念이 있다. 그러나 행위의 규범이나 가치판단의 기준과 같은 것은 필경은 그 집단의 理念에 의하여 演譯적으로 도출되어 설명될 수 있는 실천적인 규범이다. 따라서 知識社會化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집단들이 갖고 있는 理念이다. 이런 이념으로서서는 가정에서는 家訓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집단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國家에는 國家理念이 있다. 이런 국가이념은 그 나라의 역사적 필연성에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歷史意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人類社會 전체로 보면 인간의 공통된 이념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질머져야 하는 時代精神일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류의 영원한 理想일 수도 있다. 이를 인간의 絕對精神이라 한다. 宗教의 또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이같은 절대정신의 추구하고 상징의 하나라 해석된다. 개인은 이같은 인간사회의 모든 이념과 그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위의 규범등에 관한 지식을 받아 드림으로 하여 효용적인 사회구성원의 한 단위로 생활하게 된다.

사회이념은 이념이고 절대정신인 만큼 만고불역의 진리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眞理的인 이념이란 인간의 인식능력을 넘어선다.

Kant 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일치했을 때 진리를 인식했다고 정의 했다. 그러면 사회이념의 진리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인식론에서는 사고의 종합판단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에서 原理命題를 얻는다. 그리하여 이 원리명제들이 사고의 理性작용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타당하게 진행된 결과 얻어진 것이라면 그 속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원리명제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서로 상반되는 명제들이 각기 진리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두 명제가 二律背反 (Antinomy)인 경우이다. 이율배반이란 예를 들면 “우주는 한계를 갖는다”라는 명제와 “우주는 한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명제와 같은 것이다. 이 두 명제는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므로 그 어느 한쪽이 진리라면 다른 쪽은 오류여야 한다. 그러나 오류여야 하는 다른 쪽의 판단과 추론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오류임을 입증할 수 없다. 이같은 우주론적 대상에서조차 二律背反이 존재하는데 함차 인간사회의 이념에 관한 논리적인 판단과 추론은 여러개의 二律背反적인 추론명제들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명제들은 인간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각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원리명제들의 오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社會理念들의 체계가 공존하며 또 理念을 달리하는 宗教들이 인류사회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적 이념에 관한 원리 명제는 인식론적 의미에서의 진리명제라기 보다는 信念命題라 생각된다. 신념이란 증명되지 않은 지식이며 신념명제는 두개의 개념적 지식이 繫詞에 의하여 연합된 명제이며 연합의 필연성이 입증되지 않고 다만 이 명제를 추론한 당사자만이 타당하다고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사람의 同意的妥當性 (consensual validity)을 갖는데 지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없는 명제이다. 사회적이념에 관한 어떤 원리명제도 신념명제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면 수많은 신념명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 신념명제의 원리들이 각각 그 나름대로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행위의 규범을 형성하여 信念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理念으로서 어떤 信念體系를 갖느냐 하는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Rokeach (1960)는 사회이념의 체계를 信念體系 (belief system)와 不信體系 (disbelief system)로

나누고 있다. 즉 여러 신념체제중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회적 이념에 관한 원리체제는 그에게는 信念體系이고 이 체제와 이율배반적인 원리체제들은 不信體系들이다. 예를들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사회이념의 원리체제가 그의 신봉하는 信念體系이고 불교나 유교와 같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사회이념의 원리체제들은 不信體系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가 신봉하는 信念體系만이 진리적인 사회이념의 체제이고 그 밖의 不信體系들은 오류라고 입증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회이념이 있어야 하고 그 이념을 인식하는 信念體系가 없을 수 없으며 개인은 그런 信念體系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이 知識社會化의 중심이다.

社會理念이나 信念體系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위의 규범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德目을 발전시킨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덕목들만해도 다양하다. 自由와 平等이란 이념적인 덕목을 비롯하여 慈悲, 博愛, 仁義와 같은 종교적 이념, 또한 인간관계에 관한 규범으로서의 忠과 孝의 덕목, 또는 개인적 행위의 덕목으로서 正直, 勤勉, 儉約, 秩序등에 수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같은 德目들은 각기 信念體系의 전제가 되는 원리명제에 의하여 연역적으로 해석되며 서로 다른 信念體系속에서 상이한 의미와 강조점을 갖고 설명되고 있다. 어떤 신념체제에서는 自由를 가장 상위적인 덕목으로 간주하는데 반하여 다른 신념체제에서는 平等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 덕목들도 개인이 선택한 사회이념이나 그에 따른 신념체제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따라 지식사회화의 내용을 제공한다. 사회이념이나 신념체제는 그것을 신봉하는 개인에게 권면하는 德目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관한 규범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규범도 각 사회적 신념체제가 갖는 기본적인 원리명제의 체제에서 연역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될 수 있다. 기독교의 10계명이나 불교의 제율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實定法的 制限規定등 각각 그들의 신념체제에서 도출된 부정적으로 경계되어야 할 禁忌的 規範을 규정하고 있다. 知識社會化는 德目과 같은 긍정적 규범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규범도 수용하여야 한다.

지식사회화는 근본적으로 기존하는 사회이념에 관한 신념체제를 자

기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지만 그 신념체계를 信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념체계의 전제적인 원리명제를 판단하고 추론한 과정을 사색해야 한다. 이런 사색과정은 思考過程이다. 그리하여 앞선사람들의 사색한 과정을 스스로 체득할 뿐 아니라 앞선 사고의 논리보다 더 타당한 논리에 의하여 원리명제를 추론하든가 이전에 있었던 원리명제보다 더 보편적인 원리명제를 발견하여 존재의 원리명제를 포섭하므로써 信念體系의 타당성을 높이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社會化과정은 그렇지만 知識社會化란 단순한 기존의 신념체계를 이어받아 묵수하는것이 아니라 일종의 창조적과정이다. 이런 지적심리 과정을 통하여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체계를 갖게되는 것이 지식사회화이다. 지식사회화는 지식의 획득이고 창조이므로 이는 인간의 합리적인 심리과정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사회이념의 신념체계나 그에서 유래된 행위의 규범을 사회화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知識社會化뿐만 아니라 行動社會化를 하게 되는것이다.

4. 行動社會化(Behavior socialization)

행동사회화는 개인이 사회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지식사회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행위의 규범에 관한 지식과는 별도로 실제상황에서 적절하게 바람직한 반응이나 행동을 습득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孝”라는 덕목을 관념적으로 지식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孝”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식의 획득과는 별도로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는 행동사회화가 전체 사회화과정에 긴요하고 필수적이다. 행동사회화 과정은 주로 심리학에서 연구된 학습이론으로 설명된다. 가장 기본적인 학습과정이 조건반응 형성이다. 신생아가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화하는 과정은 주로 조건반응 학습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인사회의 행동사회화도 조건반응의 학습기계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Skinner의 조작적조건반응은 성인의 행동사회화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어떤 행동을 했을때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이 補強(reinforcement)되어 반복해 나타날

확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조작적 조건반응형성의 기본도식이다. 집단에 처음 참여하는 신참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것이 바람직한가 하는것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든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그 행동이 집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반응을 얻게되면 같은 상황에서는 그 행동이 되풀이 나타날 확율이 높아질 것이다. 만약 이때 그 행동이 집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받으면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날 확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신참자가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학습한다는 설명이 조작적 조건형성에 의한 행동사회화를 해설하는 기본도식이다.

조건형성 학습에서 행동을 통제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을 補強이라 한다. 이 때 보강은 학습하는 사람의 밖에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행동통제의 중심이 행동하는 사람의 외부에 있다고 한다. 행동사회화가 조건형성에 의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한 행동을 통제하고 보강하는 원천이 외부에 있다. 즉 사회화하는 본인이 아니라 집단자체나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보강한다. 이를 社會化的 主役 (socialization agency)이라 한다. 행동을 외부에서 보강하는 조건형성 학습에서는 보강이 중단되면 消去가 나타난다. 즉 보강에 의하여 획득된 행동을 반복했을 경우 보강해 주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 이것이 消去이다. 그러나 행동사회화에서는 행동이 언제나 보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면 그전 행동은 사회화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단이나 사회화의 주역은 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매번 반드시 보상을 주어 보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보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회화된 행동은 소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은 행동사회화를 통하여 집단의 효율적인 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건형성학습으로 행동사회화를 설명하려면 매번 보강하지 않더라도 학습된 행동이 소멸되지 않는 학습과정을 찾아야 한다. 즉 消去되지 않거나 消去抵抗을 높일 수 있는 학습절차를 조건형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이론가들은 二次補強, 部分補強 및 負的補強의 경우를 들어 사회화된 행동이 소멸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二次補強이란 직접적인 보강역할을 할 수 없지만 一次補強과 연

합하므로써 보강능력을 얻게된 보강물(reinforcer)에 의한 보강이다. 배고플때 음식은 一次補強物이다. 배가 고파 음식을 먹을때 함께 있었던 어떤 자극과도 二次補強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一次補強이 없더라도 二次補強만으로도 학습된 행동이 보강되어 소거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돈”은 二次補強物이다. 그 자체는 배고픈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쇄된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은 음식이라는 一次補強物과 연합함으로써 이차보강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衣食住를 위하여 일을 하지만 후에 가서는 “돈”이라는 二次補強物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하는 행동은 衣食住가 충족되었더라도 소거되지 않는다. 사업가가 사업을 확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심리적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하여 Allport(1937)는 機能的自動化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즉 “즉手段이 目的으로 된다”는 것이다. 사회화된 행동도 마찬가지로 二次補強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고 학습심리학자들은 설명한다. 消去抵抗은 二次補強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습된 행동을 보강하는 보강계획에 따라 消去抵抗이 높아질 수 있다. 학습행동을 실행할 때마다 보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보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후자의 보강계획을 部分補強이라 한다. 부분보강을 해 주면 학습이 느리고 어렵다. 그러나 일단 학습이 되면 그 행동은 消去되기 어렵다. 학습심리학자들은 행동사회화에서 실행되는 보강계획이 부분보강이기 때문에 소거저항이 커서 社會化가 된 행동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거저항을 二次補強이나 部分補強이외에 負的補強의 성질에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하여 社會化된 행동이 소멸되지 않는것은 負的補強에 의한 조건형성학습이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때 보상을 주어 보강하는 것을 正的補強이라 한다. 二次補強이나 部分補強은 正的補強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로운 자극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할 확율을 높이는 것을 負的補強이라 한다. 부적보강에 의한 조건형성학습은 소거저항이 크다.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 언제나 학습된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하게됨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젠 해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즉 소거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화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집단이나 사회화의 주역은 부적보강을 한다. 그러므로 부적보강에 의한 조건형성과정에서 어느정도 사회화된 행동이 소멸되기 어려운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학습과정이 조건형성으로 설명되는 한 二次補強이나 部分補強 또는 負的補強도 학습된 행동이 완전히 消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는 없다. 소거저항이 크더라도 보강에 의하여 학습된 행동은 장기간 보강되지 않으면 消去되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담에 있다시피 “세살적 버릇이 80 까지 간다”라는 말대로 일단 사회화된 행동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화를 행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조건형성과정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다.

行動社會化에서는 사회화된 행동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 보다는 오히려 행동들이 構造化되어 體系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화를 통하여 학습된 행동들은 사회나 집단의 효율적인 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합목적적인 조직된 행동체계가기 때문이다. 조건형성은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고 변화시키는 행동에 관한 發生學的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행동들이 구조적으로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iaget도 행동주의 심리학은 발생적 측면은 갖고 있지만 構造的 측면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조건형성이 행동의 구조적체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학습이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형성에서는 반응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물리적 속성을 갖는 환경의 자극이고 학습은 특정 물리적 자극에 특정한 유기체 반응이 연합하는 과정이라 이해한다. 이 양자의 연합강도가 높으면 그 자극이 주어졌을 경우 학습된 반응이 유발되거나 방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동일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오로지 과거에 연합과정에서 보강되어진 역사에 달려 있다고 해석한다. 또 엄격히 말하자면 똑같은 물리적 자극이 되풀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극반응이 연합될 수 있는 것은 刺激一般化에 의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견해에서는 개별적인 반응이나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은 설명하지만 개별행동들이 통합되어 構造를 형성하고 體系를 이루는 과정은 설명하지 못한다. 자극일반화가 자극들의 유사성에 따라 반응을 통제하는 작용 이상의 행동구조를 설명하지

도 못하고 또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행동사회화에서는 개별적인 행동이 학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별행동들이 집단에 공헌한다는 기본적인 도식에 따라 構造化하고 體系化하여야 한다. 만약 조건반응이 행동의 구조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행동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건반응이외의 심리과정을 탐색해야 한다. 이점이 사회화가 조건형성에 의존하면서도 완전히 조건형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이다. 행동 구조화를 이해하게 하는 심리학의 이론이 認知心理學이다. 認知理論에 의하면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하거나 방출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認知이다. 즉 자극에 관한 해석이나 의미가 반응을 결정하고 물리적 자극은 다만 인지를 형성하게 하는 端緒(cue)에 지나지 않는다. 학습이론에서도 인지나 지각을 인정하지만 이들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습이론은 인지에 대한 해석이 전연 다르다. 전자는 인지를 반응으로 보는데 후자는 인지를 반응의 결정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동일자극에 대하여 인지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인지이론의 해석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원인도 보강역사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자극단서에서 얻는 인지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인지이론에서는 설명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극단서에서 어떤 인지내용을 얻게 되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認知構造에 의하여 결정된다. Piaget는 이런 인지구조를 Schema 라 했으며 Kelley (1967)의 歸屬의 立方體構造도 인지구조의 예의 하나이다. 개인이 자극단서를 해석하는 인지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각 인지내용에 따라 반응하는 개별적인 행동이나 반응들도 構造的인 성질을 얻게 되어 體系化된다. 이를 行動體系라 한다. 행동사회화는 필경은 行動體系를 사회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지식사회화가 知識體系를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앞에서 知識社會化와 行動社會化의 심리과정을 검토했다. 이 두개의 사회화는 어느정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社會化가 완성되려면 두개의 체계가 개별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두 체계를 연결하는 사회화가 있어야하며 이 같은 사회화가 곧 處理社會化이다.

5. 處理社會化(Processing socialization)

處理社會化는 知識社會化에 의하여 수용된 知識體系와 行動社會化를 통하여 학습된 行動體系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의 社會化이다. 知識社會化가 주로 思考過程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行動社會化가 認知過程에 의하여 성립된다면 處理社會化가 진행되는 또다른 심리과정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과정을 處理過程(processing process)이라 試圖적으로 부르기로한다. 이같은 처리과정이 필요한가 하는것은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社會化를 해명하려면 이 과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知識體系와 行動體系를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것 같다. 그 이유는 哲學에서 발전시킨 人間觀이 이런 고려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서양문화에서는 Aristoteles 시대 부터 인간이 인간다운것은 理性(Vernunft)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사상이 뿌리깊다. 이같은 인간관은 인간을 가장 합리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인간행동의 원인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의 판단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이는 이성의 판단과정에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전한 이성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누구나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상을 Darwin 이 진화론을 주장할때 까지 서양의 철학자나 사회사상가들의 기본적인 인간관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社會化는 知識社會化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식사회화를 통하여 사회나 집단의 이념이나 이상에 관한 원리명제를 수용하고 그에 근거한 신념체제를 갖게 되면 인간은 자연히 그 신념체제에 부합되는 행동을하게 마련이라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주된 관심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과 그런 방법에서 판단하고 추론된 사회이념에 관한 원리명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지식의 信念體系(Wissenschaft)를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같은 인간관이나 사회관에서는 지식체제 이외에 별도로 행동체제를 상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知識體系와 行動體系를 연결하는 심리과정에 관심이 있을 수 없다.

합리주의 사상가들은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내어 인간의 절대정신, 시대정신, 역사외식 또는 사회나 국가의 이데올로기등에 관하여 논

리적으로 모순없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信念들의 지식체계를 탐색하여 思想體系를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상체계의 의식화시킴으로써 그들이 바라는 理想的인 인간사회가 건설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기도는 Platon의 理想國家건설의 청사진이 공개된 후 기천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공해 본일이 한번도 없다. 인간사회에는 여전히 전쟁과 상잔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같은 합리주의 사상은 의식되어진 知識을 근거로하여 인간사회를 해석했다. 합리주의적 인간관을 가장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국의 사상가들 중의 한사람인 John Locke (1706)는 의식되어진 것에서 한 발작도 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식되어진 심리내용이란 인간의 삶의 체험속에서 특정 대상을 고정시켜 의식속에서 구축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Brentano (1874)의 말을 빌린다면 表象되어진 것(Vorgestellte)이고 Alfred Schutz (1932)는 具像화된 것(Beharrendes)이라 했다. 환원하면 삶에 人僞的(artifact)인 가공이 첨부된 것이며 따라서 偶然性(Zufälligkeit)이 개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現象學者들은 기존의 철학이나 사상의 다채롭고 화려한 형식논리적인 사상체계를 우연성이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砂上樓閣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리주의 철학은 인생을 知識이란 單色의 세계로 환원하여 해석한다. 즉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나 인간사회 또는 집단의 문제들은 知識체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지식체계가 지시하는 바 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이같은 논리적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은 일찌기 Hegel (1807)도 지적하고 있다. 논리적 형식은 밤이면 흰 소도 검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것을 단색으로 환원해 버린다. 그리하여 인간이나 인간사회가 창조의 싹을 트이고 있다는 사실 즉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 버린다. 따라서 지식사회화는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의 대립명제(antithese)의 출현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합리주의 사상의 본산인 영국에서 조차 Adam Smith를 필두로 한 사상가들이 인간을 “快樂追求”의 존재로 이해한것은 인간성이 갖는 비합리적인 대립명제의 제기라 하겠다.

합리주의적 인간관과 대립적인 입장이 대두한것은 전적으로 Darwin의 진화론의 덕택이었다. 이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된 동물적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도 행

동의 원인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本能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Dawr-in 이전에는 인간본능(human nature)이라 부르고, 本能이란 말을 인간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동물에만 사용되었었지만 진화론이 나온 다음 부터 인간에게도 本能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본능적인 욕구가 행동의 근본적인 소인이며 지식은 행동을 타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인간이 갖고 있는 本能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그의 실증적 증거를 찾는데 심리학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심리학에는 인간 행동에 관한 “유전과 환경”(nature vs nurture)의 논쟁이 활발했으며 급기야는 1920년대에 이르러 환경론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어 행동에 관한 학습이론이 성황을 이루었다. 따라서 학습심리학에 입각한 인간관은 그 단적인 표현을 Watson (1924)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나에게 아이들을 주면……그들을 어떤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화도 학습 과정을 통한 행동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이론가들은 행동을 결정하는 조건은 환경자극이라는 이론을 성립시켰다. 따라서 별도로 知識社會化를 가정할 필요가 없이 학습에 의한 行動社會化만으로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분명히 지식사회화의 대립명제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강에 의한 조건형성은 행동체계의 구조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어 認知過程을 인정하지만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행동체계로서의 認知 Schema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사실들의 構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심리학의 입장이 지식사회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식체제와 행동체계를 연결하는 處理過程이 학습심리학자들의 관심속으로 들어 오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건형성에 의해서든 認知에 의해서든 심리학적 연구는 인간의 행동변화에 관한 타당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社會化에 관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社會化는 실험실에서 하는 전제없는 진공속에서의 자극과 반응의 연결과정의 학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나 인간집단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고 성립을 가능하게 한 제재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나 집

단의 이상이나 이념과 관계없는 행동의 습득이란 사회화과정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나 집단속에서 필요한 행동을 습득하여 경험적으로 그런 행동의 구조적인 인지체마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이상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쓸모없는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화는 단순한 행동사회화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식사회화가 요구되며 또한 이양자를 관계지어 지식체제와 행동체제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處理過程이 있고 이 과정의 社會化가 있어야 완성된다고 하겠다.

앞에서 知識社會化를 주장하는 합리주의 철학과 行動社會化를 중시하는 학습심리학의 견해와 그 문제점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사실이 두 경향이 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 융합되지 않으므로 하여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인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방향감각을 잃은 군상들이 자기중심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 주체성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실감한다. 논자들은 우리사회가 이중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말로서는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 말하자면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 그리고 부정과 부패는 이같은 생활의 이중성에 있다. 논자들은 생활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많은 타당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지만 社會化와 관련시킨 견해에서 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知識社會化와 行動社會化가 동일인의 심리속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식사회화에서 수용한 신념에 맞추어 행동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또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념이나 신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자기갈등의 소산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념이나 신념을 自己(ego)라 하면 행동하는 자는 他者(alter ego)이고 또 반대로 행동하는자가 自己라하면 이념과 신념은 他者에 속한다. 사실이 양자가 통합되어 갈등이 없이 진행되는 데서만이 개인은 自己 疎外에서 벗어나 社會의 효용적인 일원이되어 사회발전의 창조적인 역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處理過程이 이 두개의 自己 사이의 원활한 교신을 처리하여 신념과 행동이 서로 모순이 없는 인간상이 형성되어야 사회화가

완성되며 이때 행동과 신념이 완전한 일치를 보아 Höfstätter (1966)가 지적한바와 같은 自明性(Selbstverständlichkeit)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사회화에는 사고과정과 인지 또는 학습과정 이외에 처리과정이 상정되어야 할 필연성을 어느정도 시사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처리과정이 어떤 성질의 것이겠는가 하는것을 기존의 철학이나 심리학의 연구에서 찾아 보아야 한다. 우선 철학적으로 검토하면 處理過程이 의식되어진 내용을 갖는 심리과정만이 아니라 라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즉 표상되어진 것들의 관계가 아니라 표상하는 과정이라는 Brentano의 구별에서 처리과정을 후자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상하는 과정은 心理作用(psychische Akt)의 과정이며 心理現象(Psychische Phänomen)의 과정이다. 따라서 처리과정은 구조적인 성격보다는 하나의 작용과정이다. Bergson (1949)의 의식의 구별에서 보면 接續(durée)의 의식에서 生活에 대한 注意(attention a la vie)를 하는 심리과정이 처리과정과 흡사하다. Freud가 無意識의 세계를 가정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방어기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處理過程의 체계적인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心理學의 연구에서 처리과정에 가까운 것은 態度에 관한 연구로 해석된다. Thurstone과 Chave(1929)가 태도측정방법을 발표한다음 心理學者들 보다 오히려 社會學者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그후 수십년동안의 社會心理學의 중심연구과제는 태도의 문제였다. 태도척도는 대상에 대한 신념명제들로 꾸며졌으며 측정결과에 의하여 행동을 예언하려고 한다. 사회사상가나 사회학자들을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이어 받았으므로 가장 타당하고 진리적인 사회이념의 체계를 성립시키면 인간행동은 진리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실천되는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 신념도 행동으로 실천되기 어려운바를 알지 못한것이 아니며 또 설사 행동이 신념대로 실천된다하더라도 신념이 행동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과정을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도 관심이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Thurstone 등의 연구는 신념과 행동의 연결관계를 파헤치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社會學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단순한 태도측정으로

서는 행동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에서 태도 측정 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기제로서 처리과정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態度자체와 별도의 연구로서 처리과정을 문제삼은 연구가 價値內在化的 문제에 대한 연구라 하겠다. Lawrence와 Festinger(1962)는 행동의 원인을 외적 조건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내면조건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데서 가치내재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심리적인 내면에서 행동의 정당성을 찾는 과정이 가치내재화이고 이런 정당성을 찾게 되면 내재화된 가치는 소멸되지 않고 그에 따른 행동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행동사회화가 소거되지 않는 심리적 근거를 해명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체제와 지식체제의 연결과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그가 갖는 지식체제에서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체제가 사회적 이념이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런 지식체제에 의하여 정당화된 행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찰에서 보면 사회화는 단순히 사회나 집단의 기존하는 지식체제나 행동체제를 계승하는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이념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처리과정의 진행에서 영구히 계속되는 과정이라 해석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왜 자기가 대학에 들어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당화를 해야 하고 또 어떤 학과를 선택했으며 왜 그 학과의 학문을 택했느냐 하는 것을 항상 탐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처리과정이며 처리 과정이 활발하게 작용하므로써 개인이 자기향상하는 것이 社會化的 궁극적인 국면이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Allport, G 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1937.
- Bergson, Henri, *Essai sur les donnees immediates de la Conscience*, Paris, 1949.
- Brentano, Franz,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Leipzig, 1874.
- Child, I.L. Socialization. In G. Lindzey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Cambridge: Addison-Wesley, 1954.

- Gleitman, H. *Psycholog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81.
- Goslin, D.A. Introduction, In D.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69.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Phänomenologie des Geists*, 1807, Philosophischen Bibliothek, Hambrung: Felix Meiner, 6te Auflage, 1952.
- Herskovits, Melille G. *Man and his works*,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 Höfstadter, Peter R. *Einführung in die Sozialpsychologie*, Stuttgart: Alfred Kröner, 1966.
- Honigmann, John.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54.
- Jones, Edward E. & Gerard, Harold B. *Foundations-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 Kelley, H.H.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67, 14, 192-241.
- Lawrence, D.H., & Festinger, L. *Deterrents and reinforcements: The psychology of insufficeint reward*.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2.
- Locke, John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London, 1700, Everyman's library, New York: Dutton, 1961.
- Newcomb, T.M.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New York: Dryden, 1943.
- Parsons, T., & Shils, E.A.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 Rokeach, M.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60.
- Schutz. Alfred. *Der sinnhafte Aufbau der sozialen Welt*. Wien: Springer Verlag, 1932.
- Thurstone, L.L., & Chave, E.J. *The measurement of attitu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 Zigler, Edward and Child, Irvin L. Socialization. In Gardner Lindzey and Elliot Aronson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Reading, MA Addison-Wesley, 1968. vol. 3, pp. 450-589.